

□ 6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빠졌음.

[7] 8월

24일 맑음. 객사 동헌에서 정영공(丁令公 * 정걸(丁傑))과 아침밥을 같이 먹고 곧 침벽정(浸碧亭)으로 옮겼다. 우수사(*이억기)와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정조방(丁助防)도 함께 했다. 오후 4시에 출발 노질을 재촉하여 노량(露梁) 뒷바다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. 다시 자정에 달빛을 타고 행선하여 사천 모사랑포(泗川毛思郎浦 * 읍남면 주문리)에 이르니 날은 벌써 셋지만 안개가 사방에 끼어서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웠다.

25일 맑음. 오전 8시쯤 안개가 걷혔다. 삼천포(三千浦) 앞 바다에 이르렀을때 평산포만호(平山浦萬戶)가 공장(空狀)을 바쳤다. 거의 당포(唐浦 * 통영군 산양면 삼덕리)에 이르러 경상 우수사(*원균)와 배를 매고 서로 이야기했다. 그리고 오후 4시쯤 당포에 도착하여 거기서 잤다. 밤이 이슬해서 비가 잠시 내렸다.

26일 맑음. 견내량(見乃梁 * 거제군 사등면 덕호리)에 이르러 배를 멈추고 우수사와 함께 이야기했다. 순천(順天 * 부천 권준(權俊))도 왔다. 저녁에 배를 옮겨 각호사(角呼寺 * 거제땅) 앞 바다에 이르러 잤다.

27일 맑음. 영남 우수사(*원균)와 함께 의논하고 배를 옮겨 거제 칠내도(漆乃島 * 칠천도(漆川島))에 이르자 웅천(熊川) 현감 이종인(李宗仁)이 와서 이야기 했다. 저물녘에 제포 서원포(齊浦西院浦 * 창원군 웅천면 원포리)를 건너니 밤이 벌써 10시쯤인데 서풍이 차게 불어 나그네 마음이 산란했으며 이날 밤에는 꿈자리도 어지러웠다.

28일 맑음. 새벽녘에 앉아 꿈을 생각하여 보니 처음에는 나쁜 것 같았으나 도리어 좋은 것이었다. 가덕(加德 * 창원하천가면)으로 갔다.

□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빠졌음.

계사년 봄에도 전쟁은 계속되었으나 명나라 제독 이여송은 몸을 빼어 돌아갔다. 그러나 나라만을 걱정하던 공은 7월에 진을 한산도로 옮기고 외로이 바다의 성벽이 될 수 밖에 없었다. 그래서 조정에서는 공에게 삼도 수군 통제사라는 새 직함이 맡기니 이해 8월의 일이었다. <역사주석>

□ 정월 초1일부터 그믐까지는 빠졌음